
10월의 민중: 에콰도르 그리고 계급 충돌

프란클린 라미레스 가예고스

에콰도르 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원(FLACSO) 교수

원제와 출처: Franklin Ramírez Gallegos, "Las masas en octubre: Ecuador y las colisiones de clase", *Nueva Sociedad*, No. 284, noviembre-diciembre de 2019, pp. 4-14.

핵심어: 조정, 시민혁명,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2019년 10월 에콰도르 정부의 거대한 탄압 속에서 12일에 걸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운동은 연료 보조금 폐지를 명기한 대통령령을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신자유주의 성좌의 현란한 상승 국면은 그 첫 단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비록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 상승의 시발점을 깊이 표식했다. 즉 에콰도르 엘리트 집단이 대규모 상속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중과세 입법안을 부결시켰던 것이다. 이 정치적 사건은 2015년 6월에 발생했다. 당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여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후퇴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 코레아 정권에 대한 반대 정서의 광범위한 성운이 탄생했다. 이후 반코레아 정서는 더욱 확산되어 멈출 줄을 몰랐다. 반정부 정치 투쟁의 좌표가 그려졌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했으며 이전 시기에 그려진 “사회적 국가”의 청사진이 해체되었다. 그리고 점진적인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유지되었던 달러화 경제 속에서 IMF가 제시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노정은 10월의 민중에 의해 (거의) 중단되었다.

그 합법성에 대한 초기 위기에도 불구하고 크리오요 신자유주의는 그것을 지지하는 이해 집단 간의 견고한 연합 속에서 폭력적 전개 단계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 주요 정치적 대척 세력이었던 “시민혁명운동”(Movimiento Revolución Ciudadana, MRC)과 원주민 운동 세력 간의 그 어떤 접근이나 연합 시도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은 이와 같은 상황의 출현을 용이하게 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정치적 갈등은 친 코레아파와 반 코레아파 간 대립이 야기했던 정권의 허약함에서 유래했다. 엘리트들의 폭력은 피지배계급의 적대적 시각을 재조정했다.

상속자들의 승리

2013년 대선에서 코레아 대통령에 맞서 우파 세력인 기회창조당(Creando Oportunidades, CREO)과 기독교사회당(Partido Social Cristiano, PSC)¹⁾은 은행가인 기예르모 라소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고 좌파 세력인 파차쿠티크 다윈 통일운동당(Movimiento de Unidad Plurinacional Pachakutik)과 민주대중운동당(Movimiento Popular Democrático, MPD), 그리고 군소정당들은 알베르토 아코스타를 대선

1) 라소는 기회창조당을 창당하면서 하이메 네보트(Jaime Nebot)이 이끄는 기독교사회당 및 민주 좌파(Izquierda Democrática)와 협정을 맺었다.

후보로 내세웠다. 대략 2009년부터 형성된 3당 정치 체제는 사회적 갈등과 의회에서의 대결 그리고 선거 논쟁 등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비록 야당은 결정적인 국면에서, 특히 여당인 국가연합당 (Alianza País, AP)의 국가차원의 도박과 권위적 측면에 저항할 때는 단합을 할 수는 있었지만 야당들은 자신들의 노선을 견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는 정치적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해 6월 코레아 대통령은 의회에 대규모 상속과 특정 부동산 투기에 중과세 하는 두 개의 법안을 보냈다. 여기에 대해 부유층은 즉각 반발했다. 거리에서의 시위와 법안 상정의 효과 및 여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된 달러의 해외 유출은 정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몇 달 전 시민들은 “누텔라 시위”²⁾에서 국내시장 보호 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출했다.³⁾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코레아 대통령 집권기동안 스스로 시민 혁명이라고 명명했던 이것은 대중의 지지를 이미 상실했다. 또한 이 시민 혁명의 정치적 옵션들도 더 이상 다수 시민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노조와 원주민 사회로부터 수입품 규제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고⁴⁾ “마르크스주의적 세금”에 의해 야기된 갈등 속에서 정부의 노동, 환경, 사회 안전 등에 관한 개혁안에 반대

2) “누텔라 시위”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수입 상품의 부족을 초래할 세금이었다. 이 당시 언급된 누텔라는 중산층이 주로 소비하던 식품으로써 이 계층의 소비를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3) 2014년 유가하락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에콰도르 정부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달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800개에 달하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석유 불과 공공 투자의 증가로 소비 수준이 향상된 중산층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Mauricio León: “Diagnóstico y perspectiva de la economía ecuatoriana en 2016”, Análisis, Ildis-FES, Quito, 2016을 보라.

4) “El rechazo a las salvaguardias se suma a la marcha del 19M”, en *Expreso*, 17 de marzo de 2015.

하는 다양한 시위가 발생했다.⁵⁾

한편 부유층은 달러를 해외로 반출했으며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했고 에콰도르 경제의 붕괴를 예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레아 대통령은 상속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것은 2006년 헤성처럼 강력하게 등장했던 그에게 첫 번째 정치적 패배였다.

경제침제와 코레아 대통령의 무한 재선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반대, 그리고 반평등 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대결은 이때부터 전 사회분야에 침투하여 호전적인 형색을 띄게 되었다. 중산층과 상류층은 위팔라⁶⁾나 붉은 깃발 혹은 에콰도르 국기보다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검은 깃발”⁷⁾을 들고 거리로 나섰는데 이것은 적과의 비타협을 의미하는 기호로 무장하게 되었다. 반면 대통령의 담론은 소프트 쿠데타라는 볼리바르식 명제를 사용하면서 이질적 기호의 요구에 담겨 있는 정당성을 숨겼다. 거리에서 시민들이 부른 “코레아 하야, 코레아 하야...” 노래는 명확했고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격렬하면서도 파괴적인 시위는 광범위한 야당 세력의 결집을 일구어 내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 반코레아 진영의 착상은 역설적인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치 투쟁을 재조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즉 상속세 및 부동산세에 대한 법률들의 경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깊어 우파

5) 이 갈등양상에 대해서는 María Florencia Pagliarone y Matthieu Le Quang: “Entre el conflicto y el diálogo: el retorno de la política en Ecuador en *Cuadernos de Coyuntura*., 7/10/2015과 Pablo Ospina Peralta: “Por qué protestan en Ecuador?: Rafael Correa y el fracasado aumento del impuesto a las herencias“ en *Nueva Sociedad* Núm. 258, julio-agosto, 2015. 오스피나 페랄타의 논문은 <<www.nuso.org>>에서 볼 수 있다.

6) 잉카제국을 구성했던 지역을 상징하는 7개의 색깔의 정사각형 줄무늬로 이루어진 문양으로서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잉카제국을 상징하거나 남미 원주민들을 상징하는 깃발로 이용된다(여주).

7) “키토에서 시위대는 검은 깃발을 들고 항의했고 시민들은 에콰도르 국기를 들고 이들의 항의를 지지했다.” *Universo*, 2015년 6월 15일자.

는 부의 재분배를 지향하던 법안에 대해 차상위 계급, 농민, 심지어는 원주민들마저 반대 시위에 나서게 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⁸⁾

공통의 적을 가진 집단들의 우호적 관계 형성은 정치적 정체성의 특수한 성격을 녹여버렸고 제약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된 “라파엘 1세”를 하야시키기 위한 해독제로써 다양한 정치 집단들의 단일대오 형성에 대한 요구를 강화했다. 이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광폭적 통합에 대한 논의와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라소는 사회민주주의자들, 원주민들, 반채굴주의자들, 그리고 전 국가연합당 의원들과 협상을 했다. 하이메 네봇 전 과야킬 시장 역시 다양한 정치 세력과 접촉을 했지만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했다.⁹⁾

반코레아 저항운동은 더욱 확산되어 사회민주당, 기회창조당, 민주좌파 등 세 세력으로 나뉘어져 경쟁을 하는 양상이 되었다. 비록 이 경쟁과 분열은 이 정당들의 선거 승리의 잠재력을 약화시켰지만 이 시기의 일반적인 상식 차원에서는 이들이 그랬던 구상들의 놀라운 발전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모레노의 선택

스스로 시민 혁명이라고 지칭하던 코레아 정권이 부과한 세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소로써의 사유 재산의 몰수, 기업 활동에 대한 침해, 그리고

8) François Houtart: “Ecuador 2015: el agotamiento de un modelo en contexto de crisis mundial”, *Comité para la Abolición de las Deudas Ilegítimas*, 27/8/2015.

9) 네봇은 민주주의 회복기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그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동안 과야킬 시장으로 재임했는데 코레아 대통령도 그를 시장직에서 해임하지 못했다. 그는 2015년부터 그는 우파의 리더인 라소가 이끄는 좌우 연합을 추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성사되지 못했다.

사적 주체에 대한 국가적 불신의 신호로써 묘사되었다.¹⁰⁾ 친코레아 세력 사이에서 만연했던 부패에 대한 폭로와 함께 이와 같은 생각은 선거 유세를 지배했고 심지어는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이해를 구성하게 되었다.

무제한 재선거가 2017년 초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발표 역시 반코레아 파의 승리처럼 비춰졌다. 하지만 이것은 “유순한 포폴리즘 집단”이 결코 재선거의 장점들에 대해 설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코레아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와 평가는 결코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대한 국민 다수의 조용한 불신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와 같은 대중적 공화국의 징후는 대통령 재지명을 불가능하게 했고 정치 집단의 보스가 전횡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의 전환을 가속시켰다. 2016년 3월에 코레아 대통령은 “나는 에콰도르가 나에게 기대어 휴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¹¹⁾라고 말했는데 이 말로써 그는 정치적 게임을 시작했다.

통합을 위한 야당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는 정권의 은밀한 전략과 대조적이었다. 여론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권은 자신들의 전략을 가시적 프로젝트로 보이게끔 했다. 대지진 이후 정부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 정권은 더욱 낙관주의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¹²⁾ 코레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세례를 받은 대통령 후보인 레닌 모레노 전 부통령(2013-2017)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조사는 심지어 1차 선거에서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보증할 정도였다. 그런데 모레

10) 에콰도르 기업위원회의 공식성명은 이러한 생각을 종합해서 보여준다. Comité Empresarial Ecuatoriano, “El empresariado ecuatoriano ante las reformas tributarias”, en *afp*, 7/6/2015.

11) 코레아 대통령의 이 연설문 전문은 “El país necesita descansar de mí y yo necesito descansar un poquito del país” en *El Telégrafo* 2016년 3월 1일자에서 읽을 수 있다.

12) 2016년 4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의 0.7%가 감소했고 정치적 판도를 지워버렸다. 특히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에콰도르 3대 도시 중의 하나인 마나비(Manabí) 지역 피해 복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전 지역에서 시민 혁명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했다.

노 후보의 연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포용해야만 합니다”, “에콰도르의 외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합니다”, “지속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¹³⁾

모레노 후보의 정치적 평화에 대한 호소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코레아와의 대립적 논리를 통해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피로감을 씻어 주었다. 하지만 모레노는 “시민 혁명은 이미 하나의 전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자에게 제 할아버지께서 알파로¹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듯이 코레아 대통령이 이끈 시민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저는 코레아 대통령의 옆에서 그와 함께 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현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그에 대한 찬양 발언은 그 어떤 단절도 예고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로서 모레노의 애매한 태도는 에콰도르 전 사회분야에서 시민 혁명의 흔적을 지우려는 반코레아 진영의 계획과 “위대한 지도자”의 영원한 삶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국가연합당의 일부 당원들의 꿈 사이에서 등거리를 추구하려는 장면을 이미 연출하고 있었다. 모레노가 제시한 변화와 지속이라는 공식은 따라서 크게 성장한 반코레아 진영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장의 열쇠를 포함하게 되었다.

실제로 오늘날 비록 코레아 전 대통령은 모레노를 “그의” 대선 후보로 지명할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실수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를

13) 이 인터뷰는 <<https://soundcloud.com/eltelegrafoec/entrevista-a-lenin-morenoen-en-el-programa-ecuador-en-movimiento>>에서 볼 수 있다.

14) 호세 엘로이 알파로 델가도 (José Eloy Alfaro Delgado 1842-1912), 1895년에서 1901년까지 그리고 1906년부터 1911년까지 두 번 대통령을 역임했다. 급진적 자유주의자로 보수주의자들, 특히 카톨릭 교회와 대립각을 세웠고 1911년에 반대파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파나마로 망명을 하여 1912년에 다시 귀국하여 보수파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파나마에서 귀국한 지 24일만인 1912년 1월 28일 친카톨릭 군인들에 의해 수감중이던 감옥에서 살해되었다(여주).

보면 강경 보수 친코레이파와 같은 이너 서클과 매우 가까운 인물을 통해서건 혹은 국가연합당 좌파와 같은 시민 혁명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을 통해서건간에 에콰도르 국민들은 코레아가 제시했던 국가 개조의 노선에 더 이상 지지를 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민 혁명 운동이 코레아 집권 기간 장악했던 헤게모니의 축소 과정 속에서 진보 세력의 교체는 근원적으로 포스트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에 대한 대항으로 형성된 우파 세력의 성장에 의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속세 부과 법안의 폐기로 인한 친코레아 진영의 패배는 이 방향 속에서 정치 투쟁을 막을 올렸다. 또한 집권 상층부의 부패 혐의들은 코레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최측근 인사들로의 승계를 막아버렸다. 코레아 대통령이 모레노를 차기 대선 후보로 선택한 것은 국제 사회가 코레아 정부를 무능해진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구원의 공식이었던 것이다.

코레아 대통령의 흔적을 제거하는 길은 열려져 있었다. 우파적 이데올로기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세력에게 모레노는 대화를 요청했고 모든 이들의 의견과 주장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모레노 후보의 목소리는 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행정 경험의 소중하고 특수한 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계층을 아우르려는 국가적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그의 경력과 함께 그의 이미지를 보호해 주었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 대해 그가 집권하게 되면 “부드러운 정부”를 만들 것이라는 정서적 호소 전략을 용이하게 했다. 여기에는 그의 정치적 신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상 논쟁에 대한 그의 무관심과 갈등에 대한 거부는 그를 포퓰리즘의 정치화된 분노에 대한 혐오로 널리 알려진 정신적 지도자 하이메 두란 바르바가 에콰도르의 정치적 장에서 위치하고 있는 동일한 좌표에 그를 위치시켰다.

이 계획에서 우파가 앞장을 섰다. 이들은 처음부터 시민 혁명이 지향한 국가

주의 및 대결 논리에 반기를 들었다. 갈등의 지평이 닫히면서 변혁의 기어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없었다. 실제로 대선 유세에서 모레노 후보는 그 어떤 사회 집단과의 관계를 해칠만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거 운동 프로그램에 포함된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 언어들에 의도적으로 피하여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 사회운동 세력과 반코레아 노선을 건넌 좌파 세력들은 전직 장성이자 민주좌파당의 지도자인 파코 몬카요가 제시한 플랫폼 아래로 결집했는데 몬카요 역시 몬테로와 유사하게 시장친화적인 사회경제적 언어를 이용했다. 좌파는 자신들이 무력해지자 중도세력과의 중재를 선택했다. 10년 이상의 코레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축적된 사회 투쟁은 효용가치를 상실하여 폐기되었다.¹⁵⁾

해방에 관한 담론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민주주의 도래 이후 처음으로 좌파는 스스로 그 어떤 이항적 대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유층을 향한 포퓰리즘적 긴장의 끈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친시장적 아젠다와 자유주의 정치의 합의 형태가 명확하게 기반을 갖추었다.

급작스런 신자유주의

2017년 4월에 열린 대선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패배한 6명의 후보들 중 다섯 명이 라소를 지지했다. 몬카요를 추종하던 좌파 역시 모레노 대선

15) F. Ramírez Gallegos, "Équateur: ascension des luttes anti-corréistes, absence de débouché politique", en *État des résistances dans le Sud: Amérique Latine* vol. xxiv No 4, 2017.

라스를 지지했다. 반코레아 진영은 연합 전선을 구축했던 것이다.¹⁶⁾ 의회를 여당인 국가연합당이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여당은 2009년 대선 1차 투표와 2013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또한 여당은 현직 부통령이자 모레노의 러닝 메이트였던 호르헤 글라스가 부패혐의로 기소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를 2017년 대선에 모레노의 러닝 메이트로 출마시킨 것은 정권 교체기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코레아 대통령의 도박이었다.

글라스 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한 언론의 체계적인 시사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했던 코레아 대통령 집권 기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던 통제 기관들에 대한 봉쇄를 의미했으며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써 국가 기능의 축소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켰다. 라소는 이 논쟁들을 이용했다. 그는 엄격한 도덕성과 민영화, 세금 삭감, 관료주의 철폐 등을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제안들은 코레아 지지 세력의 호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내심 고갈과 지난 10년간 광범위한 사회 부분들의 국가 동력론에의 집착을 구분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의 유령과 재정 위기 속에서 달러화 기축 통화 채택으로 이어진 1999년 은행 휴무일에 대한 기억이 대선의 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소는 그의 선거 공약 중 일부는 철회하지 않았다. 반면 모레노는 이런 공약들을 유지했다. 모레노의 강력한 대선 라이벌이던 라소는 일부 공약 철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몰랐으며 결코 증명하지 못했던 사기 혐의에 대한 고발을 선거 운동의 기반으로 활용했다.¹⁷⁾

16) Rhonny Rodríguez, "No hay más opción que apoyar a Lasso dicen en Pachakutik", en *Expreso*, 2017년 3월 3일자.

17) Santiago Ortiz y Agustín Burbano de Lara, "Comicios en Ecuador: victoria electoral de Alianza país, disputa hegemónica en ciernes", *Análisis*, Ildis-fes, Quito, 6/2017.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처한 환경은 녹록하지 않았다. 박빙의 승리로 인해 새 정권을 허약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라소와 주류 언론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새 정권은 여기에 대한 응대에서,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적 대화 소집 요구의 틀 속에서 시민 혁명과 코레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과 거리를 두면서 엘리트 사회가 제시한 의제와 담론을 점진적으로 채택하여 수행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는 기회창조당의 패배와 코레아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를 추동하는 정치적 비밀협정으로써 설명된다.¹⁸⁾

당연히 모레노 대통령 집권 1년차는 시민 혁명 세력과 완벽한 구분 짓기를 상정했다.¹⁹⁾ 이를 위해 세 개의 전략적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첫째, 코레아 대통령 집권기 즉 시민 혁명 세력들이 소위 “승리한 시기”라 부르는 시기에 대척점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언론간의 화해이다. 코레아 정권의 전문가 집단이 이룬 모든 업적들이 매일 부패, 비효율성 혹은 국가적 낭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다룬 기사가 보도되었다. 2년간의 침체 끝에 2017년에 코레아 행정부가 이룬 경제회복의 성과가 폄하되었다. 모레노 행정부에 따르면 코레아 정권 당시 발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과 방법이 없었고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57%나 되었다. 반면 코레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모레노 정권의 이 주장은 과정이며 부채비율은 27%였다고 밝혔다.²⁰⁾

모레노 행정부와 코레아 전 대통령 간에 부채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부채 비율은 대략

18) 한 고위 공직자가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임해야만 했다. “Eduardo Mangas renuncia a Secretaría General de la Presidencia de Moreno”, en *El Comercio* 2017년 12월 11일자.

19) 정권 교체기에 대한 총체적 분석에 대해서는 Jonas Wolff, “Ecuador after Correa: the Struggle over the ‘Citizens’ Revolution””, en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vol. 38 No 2, 2018을 보라.

20) 같은 논문, p. 283.

43%였다.²¹⁾ 재정 위기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둘째, 반부패 행동주의와 정의의 정치이다. 코레아 전 대통령과 시민 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조사 문건들이 정치적 결정과 실시간 검색어, 종합 뉴스를 피드백하는 환경 속에서 급증했다. 글라스가 부통령직에서 해임되고 투옥되는 과정은 이 역동적 상황의 정점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정치적 효율성은 냉혹한 권력과 협박의 책략에 있어 과거의 “정통 친코레아파”로부터 오늘의 “순수 친모레노파”로의 전환을 일부분 설명해준다. 이것은 부패 혐의자를 시급한 사건 케이스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코레아 집권 기간 동안 전개되었던 공공 정책에 대한 평가의 심급 기관으로써 법원을 이용하는 전략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에서 법원의 판결은 지배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포폴리즘 국가의 확장 경제는 부패를 결과적으로 숨길 수 없었다. “청빈 국가”는 도덕적 범주으로써 다시 등장한다. 반부패운동은 이렇게 신자유주의로의 방향 선회의 주요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다.

셋째, 2018년 2월의 국민투표와 코레아주의로부터의 탈피다.²²⁾ 국민투표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들 중 주요한 것들은 기업의 요청에 따른 자본이득세 폐지, 원주민 조직 및 환경 운동가들이 요구한 채굴주의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재선 옵션의 철폐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시민 참여와 과도 사회 통제 위원회”가 코레아 정권 당시 임명된 위원들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2008년에 제정된 헌법은 통제 기

21) Subsecretaría de Financiamiento Público, “Deuda pública”, 31/1/2019; FMI, “El Directorio Ejecutivo del FMI aprueba un acuerdo con Ecuador por USD 4,200 millones en el marco del Servicio Ampliado del FMI”, No 19/72, 11/3/2019자 기자회견. 에콰도르 헌법은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최대 40%로 규정하고 있다.

22) 국민투표에 대해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M. Le Quang, “Consulta Popular 2018 en Ecuador: ¿Realmente ganaron todos”, en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10/2/2018을 보라.

관이나 선거 유관기관이 고위 공직자 임명권을 의회로부터 이 위원회로 이관시켰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코레아 전 대통령과 너무나 가까웠기에 국가연합당의 선거에서의 우위와 위원회 집행부의 다른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결과적인 지배라는 현상의 틀 속에서 시민 사회는 그 업무 적합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위원들은 그 어떤 민주적 통제 없이 활동했고 위원회가 임명하지 않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을 해임하는 등 위원회 설치 규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권한까지 휘두르게 되었다. 반코레아 진영에 의해 평가받은 위원들은 해임되었다. 이렇게 행정부 내 권력분산 문제와 “저주받은 포폴리즘”으로부터의 국가적 오염 문제가 해결되었다.

국민투표의 실시는 국가연합당을 내파시켜 버렸다. 모레노 대통령은 에콰도르 민주 정치의 장 속에서 최대 규모의 정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 활동을 동결시켜 버렸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번에 걸쳐 신시민혁명운동당의 정당 등록을 차단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기업 고위 임원들과 엘리트들은 대통령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했다. 모레노 대통령이 에콰도르 기업위원회 회장이었던 라카르도 마르티네스를 재정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입법부 장악 이후 모레노 대통령을 지탱하는 통치 협정에 중지부를 찍은 사건이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통치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통치 연합체는 원주민과 노조 대표도 이 연합체에 포함시켰다.²³⁾ 코레아 대통령이 해체시켰던 정치협력체²⁴⁾의 재구성과 우파와 국가연합당 그리고 파차쿠티으로 구성된 새로운 의회는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23) 에콰도르 원주민 국적연합(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 del Ecuador, Conaie) 전임회장은 장관급에 임명되었고 또 다른 간부들 역시 고위 공직에 해당하는 직급에 올랐다.

24) 협동 조합주의와 시민 혁명에 관해서는 Soledad Stoessel, “État et représentation politique dans l'Équateur contemporain: le cas des transporteurs syndiqués”, en *Cahiers des Amériques Latines* No 83, 2016을 보라.

지배구조의 딜레마를 해결했다.

오직 힘의 관계와 권력의 합법화 메커니즘 속에서의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의 큰 변화만이 에콰도르의 근원적인 경제 정책 전환이 민중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시민혁명운동당만이 반대한 생산성 증진법은 2018년 8월에 승인되었는데 이는 에콰도르 기업 위원회 회장이 재정부장관에 임명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막대한 이익을 유지하고 시장 사회를 재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에콰도르에서 제정된 경제 관련 법들 중 가장 견고하면서도 공격적인 법일 것이다. 이 법은 긴축 정책을 지양하고 경제 집단들의 막대한 소득을 용이하게 했으며 발전적 분배국가의 주요 수단을 해체해 버렸다.²⁵⁾

그런데 이와 같은 해체는 곧 공공 재정의 악화를 성정했다. 즉 천연자원 가격의 특수한 상승에 대한 과세를 포기했고 소득세에 대한 최소 선세금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공공 부문의 연 3% 이상의 성장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유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신용의 이용을 제한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적자 예산의 승인을 금지했다. 이렇게 국가 행위로서의 공공 투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생산성 증진법은 동시에 모든 원자재에 있어 국제투자 중재 의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써 국가는 정책 목적에 따른 특정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특혜를 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상실해 버렸다.

코레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축적된 시스템 재디자인의 일환으로 모레노 정권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18년 6월

25) 예를 들어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나 석유, 통신, 바나나 생산 기업들, 그리고 건설과 금융, 수입 업체 등 50개 주요 기업의 채무를 55%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Andrés Araúz, “Trole 3: 50 beneficiarios de la remisión tributaria”, en *Observatorio de la Dolarización*, 21/6/2018.

에 에콰도르를 방문했다. 이후 양국 간 안보협력 사무소 개소가 구체화되었고 11년 만에 에콰도르가 다국적 군사훈련인 UNITAS²⁶⁾에 복귀했으며 만타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정보수집 비행기가 활동하는 등 양국 간 관계 개선이 구체화되었다.²⁷⁾ 또한 미국 국제개발처의 에콰도르 복귀 및 영국 간 상업 협정 체결 등이 공표되었다. 에콰도르 정부는 줄리안 어산지²⁸⁾를 영국 정부에 인도하고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남미국가연합에서 탈퇴했고 웨브론에 대해 내려진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²⁹⁾을 폄하하는 등 미국 및 서방과의 일련의 관계 개선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에콰도르는 IMF와의 협상을 확실히 보장받았다.

일반적 관심사와 조정

비록 권력 그룹들의 중심성은 숨길 수 없었지만 정부는 정국 운용수단으로써

26) 미국 주도하에 1959년부터 실시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참여하는 연합 해군훈련(역주).

27) “국방부는 외국 군대가 자치권을 가지지 않으며 에콰도르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가 있음을 보증한다.” *La Nación*, 28/8/2018.

28) 위키리스크를 통해 주요국 정치인들의 전화통화와 이메일 내용을 폭로하자 2012년에 당시 코레아 대통령은 그의 반미적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에콰도르 망명을 허용했다. 하지만 당시 영국에 머물던 어산지의 출국을 영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아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고 2018년에 에콰도르 시민권을 받았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친서방노선을 추구하던 모레노 대통령은 어산지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꼈고 결국 2019년 4월에 그이 망명을 취소했다. 이후 어산지는 곧바로 영국 경찰에 체포되었다(역주).

29) 미국의 석유기업 텍사코는 1864년부터 에콰도르 밀립 지역에서 유전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여기에 대해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1993년부터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2001년에 텍사코가 웨브론에 인수합병되면서 이 소송이 웨브론으로 승계되었다. 2013년 에콰도르 법원은 웨브론에게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공식 사과와 환경복구비용으로 95억 달러를 부과했지만 웨브론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사과 및 보상을 거부했다. 2014년 미국 연방법원이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에콰도르 피해 원주민들과 웨브론 사이의 법정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역주).

대화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공기로 정국을 감쌌다, 포스트 포퓰리즘 평화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한 공무원은 새로운 “조화”와 관련하여 “가족들은 이미 평온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사회 운동은 모레노의 소프트 파워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언론은 사회 화합의 감각을 지탱해 주었다. 조정을 통해 사회 집단 간 그 어떤 적대적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2019년 2월에 체결된 IMF와의 협정도 시민혁명운동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회 집단도 자극하지 않았고 시위도 없었다. 사회 집단 간의 교류가 자리매김을 했다.³⁰⁾

그러나 사회 갈등은 2017년부터 증가했다. 그 분열 양상은 주요 사회 집단의 실질적 마비 속에서는 볼 수 없었다. 존망 자체의 기로에 서 있던 시민 혁명의 계승자들도 다양한 투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정부는 “수준 높은 시민 사회”와 반 코레아주의의 고착화에 스스로를 국한해 버렸다. 그러나 조정과 함께 빈곤이나 실업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³¹⁾과 같은 오래된 “사회적 문제”는 명확하게 에콰도르 사회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 속에서 공공 행정에 대한 불편함은 모레노에 대한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렸다.³²⁾ 또한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소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증가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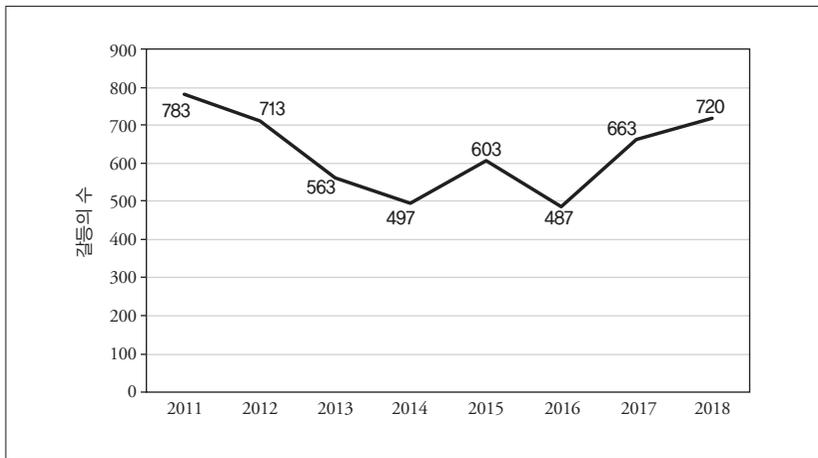
30) “Decadencia e instrumentalización de la Conaie”, en *Crisis*를 보라. 이 기사는 <<www.revistacrisis.com/editorial/decadencia-e-instrumentalizacionde-la-conaie>>에서도 볼 수 있다.

31) 소득에 따른 도시 빈곤율은 2017년 13.2%에서 2019년 16.8%로 증가했다. 적정 고용율은 2016년말 41%에서 2019년 전반기 38%로 떨어졌다. 또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 비율이 57%에서 59%로, 실업율은 4.0%에서 4.9%로 증가했다. Jonathan Báez: “Panorama laboral en Ecuador. La precarización y el deterioro de las condiciones del empleo continúan su marcha a septiembre 2019”, en *Unidad de Análisis y Estudios de Coyuntura*, 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17/10/2019.

32) 2019년 10월 16일부터 20일 걸쳐 Encuesta Perfiles de Opinión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말 모레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1%였지만 2019년 중반기에는 20%로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료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연설은 이미 사회 전체에 퍼져있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시켰을 뿐이다. 정부의 실패한 경제노선 선회와 국민의 대표 기관이나 공개 토론에서의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 당국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이후 그 무엇도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IMF와의 합의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합의 기본 문서 역시 전문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조정은 그 어떤 대화의 주제가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폐쇄 앞에 이제는 거리만 남았던 것이다.

〈그림 2〉 에콰도르: 사회정치적 갈등양상(2011-2018)



33) Latinobarómetro에 따르면 2015년에 에콰도르 국민의 40%가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국가가 운영된다고 밝혔는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두 배로(81%)로 상승했다. 반면 2015년에 에콰도르 국민의 56%가 “국민 모두를 위해” 통치된다고 응답을 했는데 2018에 이 비율은 17%로 하락했다. Corporación Latinobarómetro: *Encuesta Latinobarómetro 2015 y 2018*, 이 자료는 <<www.latinobarometro.org/latOnline.jsp>>에서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밤이 되었다. 언젠가 모레노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우리 에코 도르인들은 기업가들입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의 보호에 대한 요구를 위한 안전 지대로써의 사회의 기업적 신화는 모레노가 제시한 기업가적 약속의 유순한 추종자들만이 변역할 수 있는 이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거리로 나온 수많은 시민들을 향해 정부는 “친코레이파, 마피아들, 폭도들”이라는 협소한 정치적 용어만 내뱉었다.

다음 단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탄압 장치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10월 1일에 공표된 조치들에 항의하기 위한 전국적 총파업 예고가 나온 직후 모레노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공간이 협소해지고 시위 진압을 위한 병력의 전개가 강화되었을 때만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보였다.

시위는 11일 동안 지속되었다. 여러 시위 주도세력들은 원주민 단체가 주도한 반정부 투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에 항의하면서 서로를 보호했다. 시민혁명운동당은 10월 2일에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지만 사회적 반응은 거의 없었다. 운송노동자들이 10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국가를 마비시켰다. 이들의 전국적 파업 예고는 원주민 운동 단체들이 8월에 밝혔던 봉기 계획을 가속화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수도인 키토에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고 특정 지역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곳들로부터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10월 7일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10월 7일 원주민 단체들이 키토에 도착하기 전에 키토의 거리는 이미 학생들과 여성들 페미니스트들, 노동자들, 농민들,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 좌파 군인들, 생태론자들, 일반 시민들로 가득찼다. 시위 참가자들은 매우 다양했지만 이들의 요구는 하나로 수렴되었다. 즉 이들은 연료보조금을 폐지하고 유류 가격의 자율화를 명기한 행정명령 883호의 폐지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것이다.

에콰도르 원주민 국가연합(CONAIE)이 주도한 10월 9일 집회는 21세기 들어 가장 강력한 민중 시위였다. 모레노 대통령은 수도를 과야킬로 옮기고 그에게 충성스런 매스컴과 기업인들의 호의, 그리고 군부의 보호 속으로 숨어들었다. 퇴역 장성 출신인 오스왈도 하린 국방부장은 국영 방송을 통해 “군은 전쟁준비를 마쳤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³⁴⁾은 오히려 시위대를 더욱 단결시켰고 이들에 대한 에콰도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공휴일이었던 10월 12일 시위대의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도인 키토에서 시위는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계엄령 발표와 군 병력을 동원한 키토의 완전 통제만은 단지 시위를 억제만 했지 시민들을 해산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키토 각 지역에서 그날 밤에 열린 냄비 시위는 이전에 전개되었던 냄비 시위가 연장된 것으로써 오후 3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린 정부에 대한 상징적인 저항의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권력은 국민들에 의해 조롱받았다. 원주민 운동의 바탕을 형성하는 강경 노선이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의 움직임을 주도했다. 원주민 단체의 대표들은 원주민들의 요구를 결코 양보하지 않고 민중의 분노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 말하고자 하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10월 13일 협상을 특별시하려던 정부의 의도는 공동의 선을 대표하려는 원주민들의 의지와 충돌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원주민 운동의 슬로건이었던 “그 무엇도 오직 원주민들만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슬로건이 귀환했다. 농업 분야를 위한 부문별 보상이나 차별화된 정책은 모레노 대통령이 밝혔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키지의 폐지를 선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전국에 생중계로 방영되는 가운데서 억제

34) “시위 과정에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8명이 한쪽 눈을 잃었다.” 2019년 10월 23일자 *Comercio*,

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에 의해 착취당하고 모욕당한 서민을 대표하는 호민관처럼 말하는 원주민 대표들을 마주해야만 했다. 일반적 관심사는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모레노 대통령을 결국 다음날 행정명령을 883호를 취소했다.

같은 날 그는 코레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표들을 대규모로 체포했는데 여기에는 정치범도 있었다. 그리고 원주민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모레노 대통령은 1970년대 국가 안보 교리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전투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호전성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범아메리카 인권위원회의 요원들이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³⁵⁾ 세계체제론에 의거하여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은 쇠퇴 기로에 있는 모든 권력은 그 공격성이 강해지고 보다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10월의 봉기가 친 기업적 정부를 완전한 권위주의의 경사면에 세워 놓았는가? 오늘날 동원된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이상으로 두려움을 경험한다. 이 인식 속에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다.

정동희 옮김

35) "CIDH culmina misión de observación a Ecuador", 2019년 11월 5일자 보도자료. <<www.oas.org/es/cidh/prensa/comunicados/2019/285.asp>>.